

영화로 보는 현대사 중간 정리

- 영화의 탄생 배경

- 피터 마크 로제 : 망막 상에 잔존하는 장면을 연계되도록 하는 잔상 효과에 대한 이론 정립

- 영화초기의 시대적 배경

- 에디슨&딕슨의 키네토 그래프 : 한번에 한사람만이 볼 수 있음 (잔상효과 이용)
- 1894년 프랑스 뤼미에르 형제의 시네마토그래프가 특허를 획득 (벽에 쏘는 영사기 형태로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와 유사)

- 세계최초의 영화 : 열차의 도착

- 영화초기의 시대적 배경 4가지

◆ 19세기 과학의 발달

- 잔상효과의 원리
- 카메라와 영사기의 발명

◆ 시각문화의 확장

- 문자보다는 그림을 선호
- 문맹률이 높음 (노동자들)

◆ 대도시의 발달과 대중문화의 필요성

◆ 국제화 시대

- 1차세계대전 직전의 유럽의 흐름

- 역사는 비단신을 신은 자들이 계단을 따라 내려가고 나막신을 신은 자들이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소리로 가득 차 있다 -볼테르-
- 18세기 후반의 유럽 : 농업 분야에서는 눈부신 과학 기술의 발달로 생산량 크게 늘어났고 제조업 분야에서는 노동력과 자본을 새로운 형태로 묶어 생산량을 늘렸다. 농사 짓던 사람들이 직장

을 잃고 도시로와서 공장에 가게 됨

- 산업혁명 전에는 항상 농업혁명이 있었다. : 농사 짓던 사람들이 도시로 왔다)

- 19세기 말 유럽 상황

- ◆ 영국은 농촌인구가 고작 20퍼센트 밖에 되지 않게 됨

- ◆ 프랑스는 나폴레옹3세가 대통령으로 선출, 쿠데타를 통해 황제로 즉위. 국가주도 산업화를 시행 (영국 따라잡기 위해서) 1870년 보불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하고 나폴레옹 3세가 포로로 잡힘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국민의회가 만들어져 휴전 협정 체결. 무능한 임시 정부에 분노한 파리의 소시민과 노동자들이 노동자와 무산자 계급이 나라를 다스리는 파리 코뮌을 선포

- ◆ 독일은 1848년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등 39개의 주권국가들이 모여 연방을 만들었으나 실패. 이후 독일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 비스마르크가 철혈정책으로 독일을 통일, 프랑스와의 보불 전쟁에서 승리하고 강대국의 대열에 합류 1880년대 세계 경제가 계속 위기에 빠지게 되자 식민지를 이용하여 국내 경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여 영국 프랑스와 대립이 시작됨

- 보불 전쟁

- ◆ 비스마르크 (프로이센의 재상)이 프랑스에게 대망신을 당한 것 처럼 써진 기사를 영국 신문에 흘려 발생 명분 만들어서 전쟁한 것 프로이센이 승리하고 곧이 지네나라 두고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까지 가서 대관식을 함 개농락

- 크림 전쟁

- ◆ 크림 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 프랑스, 영국과 사르데냐 왕국의 동맹군에 패배한 전쟁

- ◆ 카톨릭 성지에 대한 권리를 명분으로 한 러시아 견제 전쟁이었음

- ◆ 러시아는 식민지를 향한 부동향을 얻고 싶었으나 동맹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부동향을 얻지 못했다.

- ◆ 이러한 식민지를 향한 싸움과 견제는 1차세계대전 전까지

주욱 이어졌다.

- 제 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수습

- 1914년 7월 ~ 1918년 11월
- 연합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vs 동맹국(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의 충돌
- 후에 이탈리아, 일본 미국이 연합국에 가입, 오스만 제국, 불가리아 왕국이 동맹국에 가담
- 1차세계대전의 근본적인 원인은 신제국주의(많은 식민지를 가지기 위한)

- 사라예보 사건에서 제 1차세계대전

-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헤르체고비나의 수도인 사라예보 방문
- 사라예보를 방문한 프란츠 페르디난트를 세르비아계 청년 보스니아 민족주의 단체의 암살단이 암살 당한 사건이 사라예보 사건
- 오스트리아는 이번 기회에 안정되지 않은 발칸반도의 여러나라를 식민지화시켜야 겠다고 생각
-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게 굳이 일을 처리하기 힘든 시간에 암살단 단체를 넘길것을 요구
- 불가능 했던 세르비아.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 이것이 1차세계대전의 시작

- 전쟁이 끝난 후 베르사유 조약

- 1919년 6월 독일 제국과 연합국 사이에 맺어진 제 1차세계 대전의 평화협정
-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서명되었음 보불 전쟁에서 대관식의 치욕을 갚은 프랑스
- 독일의 영토가 엄청 쪼그라들었다.

- 소비에트 혁명

- 1917년 2월과 10월에 러시아에서 일어난 세계 최초의 마르크스 주의에 입각해,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정권이 수립된 혁명

- 1차세계대전 중에 철학에 의해서 국가체제가 전복된 예임
 - ◆ 니콜라이 2세가 러시아의 마지막 왕으로 즉위
 - ◆ 19세기 후반 산업화
 - ◆ 러일 전쟁
 - ◆ 피의 일요일 (1905년) 살기 어려워진 노동자들의 시위
 - ◆ 1905년 5월 전함 포템킨의 선원 반란
 - ◆ 의회설치 (1906)
 - ◆ 제 1차 세계대전 참전
 - ◆ 2월 혁명
 - ◆ 10월 혁명

- 간전기의 서구 여러나라

■ 독일

- ◆ 하이퍼인플레이션과 극좌 극우 세력의 저항과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외교 관계의 논란 등 많은 문제 1933년에 아돌프 히틀러는 연정을 통해 총리에 취임.
- ◆ 바이마르 공화국의 하이퍼인플레이션 :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불과 약 3년만에 물가가 무려 1조 배나 올랐다. (패전으로 인한 생산시설 붕괴 전쟁 기간 동안 무분별한 통화 발행이 시발점)

■ 영국

- ◆ 패전국들의 식민지 흡수 성공했지만 전쟁 수행을 위해 많은 인원과 물자를 동원한 대가로 팍스 브리테니카가 흔들리기 시작
- ◆ 이전에 독립에 대해 언짢은 적이 있는데 기존 식민지들의 독립운동이 늘어났다

■ 프랑스

- ◆ 전쟁 중 공업과 농업생산의 중심지였던 북부지방에 전장이 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음 (서부 전선)
- ◆ 프랑화 폭락 (돈 엄청 찍어내서 전쟁 했었음 -> 인플레이

선) 자본의 해외 도피

- ◆ 권력을 잡은 푸앵카레 내각은 증세와 화폐의 평가 절하, 금본위제로의 복귀 등의 정책을 사용해 점차 안정되어 가는 프랑스

■ 스페인

- ◆ 이전까지 잘나가다가 무너지기 시작함
- ◆ 배경이 된 것이 스페인 내전 (1936.7 ~ 1939.4)
 - 프랑코파와 인민전선의 내전임 (프랑코파 엄청 잔인했고 인민 전선이 도덕적 우위에 있었음을 가르쳤었음 그리고 판의 미로의 오펔리아 아빠가 프랑코를 모델로 했다는 점도 있었다)

- 세계대공황

■ 1929 - 1939

- 대공황 전에 미국의 경제는 침체되어있었지만 유럽국가들에게 군수품이나 식량을 팔아 막대한 돈을 벌었다.
- 전쟁의 피해가 없었던 만큼 20년대 내내 번영을 누렸다.
- 쪽쪽 공장을 늘리다가 거품이 한번에 꺼지며 세계대공황
- 1929년 10월 24일 (마의 목요일) 미국의 주식 돌연 붕괴
- 경제 공황의 이유
 - ◆ 미국의 불평등한 분배 (부가 상위 계층에게 많이 몰림)
 - ◆ 설비를 크게 확장한 것이 문제가 됨
- 미국의 대처 : 관세 장벽을 쌓고 무역흑자를 보았다
- 이러니 영국과 프랑스가 죽을 맛 영국 연방끼리 관세를 없애자고 오타와 협정을 맺었다. 결국 자본주의 세계는 블록화하고 대립과 항쟁이 격화
- 이런 와중 1933년 뉴딜 정책
 - ◆ 루즈벨트는 미국의 전통적인 개인주의 = 자유방임주의를 수정해 통제 경제 요소를 도입해 공황을 극복하고자 함 (국가가 경제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 제2차세계대전의 발발과 수습

- 독일) 1918년 독일 11월 혁명으로 인해 독일 제국이 해산 후, 민족주의 정부인 바이마르 공화국이 들어서게 된다. 우익과 좌익의 정치 대립이 격화 히틀러가 독일의 수상에 임명되었다.
- 국회의사당 화재 사건 (1933년 2월 27일)
 - ◆ 히틀러가 화재 현장에 도착 즉각 화재가 공산주의자들의 소행이라고 선언 히틀러는 비상사태를 선언할 기회를 얻었고 대통령에게 공화국 헌법의 인권 조항을 대부분 폐지하는 비상사태법에 서명할 것을 강요
- 1939년 독일이 오스트리아, 체코를 병합
- 1939년 9월 1일 새벽 나치 독일군이 치외법권 도로 건설 요구를 거부한 폴란드의 서쪽 국경을 침공 (2차 세계대전) 독일의 진짜 욕심은 중동지역의 식민지화였다.
- 폴란드
 - ◆ 폴란드는 1795년 프로이센, 러시아, 오스트리아에 의해 분할 되었었음
 - ◆ 이어 제 1차 세계 대전 이후 1918년 11월 11일에 독립을 찾았다
 - ◆ 2차 세계대전에 폴란드 유대인 무지막지하게 학살당했다

– 2차세계대전 종전 ~ 1970년대 초

- 국제 질서의 재편 : 팩스 브리타니카에서 팩스 아메리카나로!
- 브레튼우즈협정(44~71) : 미국의 달러가 세계 통화가 된다. 미국의 달러화를 기축 통화로 하는 금본위 제도의 실시. 이후에 베트남 전쟁 등으로 인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전비 조달을 위한 통화량 증발에 의한 인플레이션으로 달러 가치 급락 나라들은 금태환 요구 71년 금태환 정지선언
- 냉전의 시작(트루먼 독트린):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 의회에서 선언한 미국 외교 정책에 관한 원칙. 공산주의가 퍼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자유와 독립의 유지에 노력.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이 내용
- 마셜 플랜(47) 황폐해진 유럽을 재건하고 미국 경제를 복구하

며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것이 목적 돈을 공급하며 원조하는 마셜 플랜

- 흑인민권운동 : 흑인 소년 메잇 털이 얻어받고 로자 파크스 여사가 버스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 본격적으로 번지기 시작. 대표적 운동 인물로 평화를 노래했던 마틴 루터킹과 조금 극단적으로 나아간 말콤 x가 있었다.
- 68혁명 : 기존의 가치관을 부정하고 전복시키기 위한 혁명 대학에 진학한 젊은이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대학교육체제에 대한 분노 -> 기성세대의 모든 것에 대한 도전으로 번짐 원래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인데 이러한 가치도 뒤집어짐
- 히피즘 : 1967년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청년들의 반문화운동 베트남 전쟁과 여러 암살 사건에 지쳐 사회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에서 비롯

- 제2차세계대전 후의 세계질서

- 냉전 : 2차 세계 대전 이후 ~ 1991년까지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을 비롯한 양측 동맹국 사이에서 갈등, 긴장, 경쟁 상태가 이어진 대립 시기. 이 시기 동안 정말로 전쟁이 없진 않았다. 미국과 소련의 대리 전쟁도 많았음
- 소련의 성장 : 여러나라에서 공장 뜯어와서 미국과 견줄 수도 있을 법한 제 2의 공업국가로 성장 상호 견제의 시작
- 냉전 시기에도 끊이지 않았던 대리전쟁
 - ◆ 그리스 내전 : 영국 미국의 지원을 받은 그리스 정부군과 소련 연방국가의 지원을 받은 민주군이 싸운 내전
 - ◆ 베를린 봉쇄
 - ◆ 국공 내전
 - ◆ 한국 전쟁
- 매카시즘 : 1950년부터 1954년까지 미국을 휩쓴 공산주의자 색출 열풍
- 미소우주경쟁
- 1959년 쿠바혁명 : 쿠바에서 사회주의 혁명 성공 밑에 있는 나라들에도 영향이 퍼졌음 미국이 반정부 쿠데타를 지원하기도 했

고 (피노체트) 여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

- 프라하의 봄 (1968) :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
-> 좌절되었다
- 1989년 냉전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 붕괴
- 1991년 냉전 종료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소련 해체
연설과 함께 러시아로 탈바꿈
- 베트남 전쟁 (1955년 11월 1일 ~ 1975년 4월 30일 앞의 10년은
프랑스랑 뒤에 10년은 미국이랑)
 - 제 1차 인도차이나 전쟁 (1946년 ~ 1954년) : 프랑스와 베트
민의 전쟁 (프랑스와 남베트남이 팀먹고 북베트남과 전쟁) 프랑
스 힘들어하다가 미국의 지원까지 받았지만 철군
 - 승려 텍짱득은 남베트남 정부의 불교 탄압에 항의 소신공양으로
생을 마감 남베트남 사회의 공분과 베트남 전쟁의 도화선
 - 여론까지 안좋은 남베트남 상황. 남베트남이 북베트남에 먹힐까
바 미국은 톤킨만 사건을 일으킴 조작된 사건을 명분으로 베트
남 전쟁에 군사개입 시작
 - 2차 인도차이나 전쟁 : 미국의 본격적 개입 자본주의 진영과 공
산주의 진영이 대립한 대리전쟁
 - 미국내에선 명분없는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이 크게 일어나 비판
이 고조됨 마약 상습자 만형 늘었음 미국도 전쟁하느라 돈 엄청
빨림 결국 평화 협정 체결 미군 전부 철수